

협동학습 구조하에서 'SAC(구조화된 학문적 논쟁수업)'가 주는 교육적 함의

이순재(李鎭宰)*

논문 요약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논쟁문제를 협동학습 구조 하에서 다루는 접근법으로서 강조되고 있는 SAC 전략의 이론적 틀과 의의를 고찰한 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논쟁문제를 중심으로 실제 적용 가능한 SAC 전략을 제시하고 수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학생들이 특정 입장을 소집단 내에서 찬성과 반대로 논쟁하고, 집단 간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SAC에 활용된 절차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주어진 입장에 대한 상황 탐색, 둘째, 입장의 타당성에 관한 설득력 있는 주장 제시, 셋째, 공개적인 토의에 참여하기(각자의 입장에 대한 일관성 있는 주장, 반대 입장에 대한 반박 시도, 상대방의 입장 반박하기 등), 넷째, 상반되는 관점 제시하기, 다섯째, 쟁점에 관한 최상의 합리적 판단 종합하기 등이다.

사회심리학 및 사회인지 이론에 근거를 둔 SAC의 유용성은 논쟁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선정·보유·변형하면서 지식의 관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업에 적용할 경우 고급사고력이 함양될 수 있다는 데 있다.

- 주요어 : 구조화된 학문적 논쟁수업 전략, 논쟁문제, 합리적 의사결정, 고급사고력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시간강사

I. 문제 제기

현대사회는 다양한 논쟁문제들이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으며, 이를 논쟁의 절차적 원리에 따라 공개적으로 다룰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우리 사회의 많은 부문에서 논쟁문제를 다루면서 호혜(互惠)를 얻고 있다. 이론가들끼리 논쟁하면서 과학적 지식 발전이 촉진되고, 정치적 논쟁으로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다양한 쟁점들의 양상이 제시되고, 사회적 논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논쟁이란 사회적으로 갈등이 표출되면서 상반된 의견이 구조화되어 대립되는 것을 말하며, 구조화된다는 것은 상반된 의견이 각각 그 의견을 지지하는 논리와 경험적 증거, 그리고 상당수의 지지자를 가진 가치들이 검토되어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진 사고체계를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쟁문제(controversial issues)란 사회적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고 그 결정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의 다수에 관련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선택 가능한 대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차경수, 1998).

그런데 이러한 논쟁문제를 이용하여 토의를 하게 된 것은 시사문제와 현대의 사회문제들에 관한 강좌가 일반화되었던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이었기 때문에, 이때 학생들이 논쟁문제를 접해야 한다는 이론적 정당성은 상당히 약했다(Keohane, 1951). 민주주의 가치관에서 도출된 현대의 교육목적은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적인 시민 양성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민주주의 체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젊은이들을 준비시킨다면, 학교는 다원주의 사회에 내재된 논쟁적 쟁점을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을 젊은 학생들에게 제시해야만 했다.

중등학교 교육에서는 논쟁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교수전략이 활용되었다. 과거의 교육자들은 논쟁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교과내용을 단순히 전통적 강의 위주의 수업으로 행하여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들의 입장과 신념을 거의 표현하지 못하였으며, 논쟁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가치 논쟁을 거의 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집단 토의수업이 실시되어 의견 진술 및 논쟁의 기회가 주어지긴 했으나, 다양한 소집단에서 제시된 의견을 합의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논쟁문제를 다루는 접근법으로서 교실에서의 소집단 활동과 학생-교사의 상호작용 교수전략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법들은 개인의 학습과 역량을 촉진시키는 유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Dickelman, 1988; Lindeman, 1988; Watson, 1988). 특

히 상호작용 교수전략은 광범위한 계획 및 조직화 등을 필요로 한다. 체계화된 상호작용 수업전략은 학생들에게는 학습기회를 최대화하고, 사회적으로 정서적 성장을 촉진시키며, 타인의 견해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켜 상호작용 기능이 활발하게 발달될 수 있다(Weaver & Cotrell, 1986).

Johnson과 Johnson(1979; 1994; 1997)은 사회심리학 및 사회인지 이론 등에 기초를 두면서 협동학습 구조 하에서 논쟁문제 교수에 유용한 구조화된 학문적 논쟁수업(structured academic controversy; SAC)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학생들이 논쟁문제에 관한 특정 입장을 소집단내에서 찬성과 반대로 논쟁하고, 집단 간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논쟁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교수전략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SAC 전략은 우리의 주위에서 표출되고 있는 다양한 논쟁문제에 대한 탐구와 깊이 있는 조사, 그리고 그 과정에 수반되는 토의와 같은 상호작용은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의 사회적 제도와 생활양식의 근원을 이루는 기본적 가치나 전제들에 대한 고급사고를 필수적으로 유발시킨다. 이처럼, SAC 전략이 고급사고력의 함양에 효과가 큰 이유는 경쟁학습이나 개별 학습에 비해 고급사고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즉,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모험적 사고와 발표 기회, 확산적 사고, 즉각적인 피드백의 기회가 더 많기 때문으로 많은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SAC 전략을 사회심리학 및 사회인지 이론 등과 관련시켜 고찰 한 후 SAC의 의의를 진술하고, 이를 토대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논쟁문제를 중심으로 실제 적용 가능한 SAC 전략을 제시하며 수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II. SAC의 이론적 틀

사회심리학 중 인지일관성 이론과 사회인지 이론 중 스키마 이론 등은 SAC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Blandford, 1991; Pederson, 1990). 아래에서는 이들 이론들을 고찰하고 SAC와의 교육적 함의 등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사회심리학 이론 : 인지일관성 이론(Cognitive Consistency)

1) 이론의 의의

사회심리학에서는 개인 및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상황적인 요인을 주로 연

구한다. 여기에서는 SAC와 관련 있는 인지일관성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태도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이 태도가 행동의 예측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도의 변화에 관한 관심도 태도가 변하면 행동도 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의 이론적인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 인지학파의 관점에서 발달된 인지일관성 이론인데, 다음의 네 가지 명제들로 요약될 수 있다(전병재, 1991).

첫째, 인지구조의 수정이나 태도변화는 인지구조를 이루고 있는 요인들 사이의 불일치로 인한 결과이다. 둘째, 인지 불일치는 그 요인들이 서로 상충한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비롯되는 것이다. 셋째, 태도 변화의 양은 인지불일치의 정도에 비례한다. 넷째, 인지구조 속의 형평이 깨어졌을 때 그 속의 각 요인들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역동성을 띄는데 이는 인지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인지일관성 이론은 인지들(즉 어떤 신념·태도·행동 간의 일관성)에 초점을 두었다. 인지이론은 인지일관성의 동기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이론들 이외에도, 인지나 정보의 처리, 평가에 초점을 두는 이론들도 있다. 후자의 이론들은 태도 형성이나 변화를 여러 가지 인지들을 평가하고 처리하는 과정으로서 본다. 이 이론들은 학습적 접근보다 대안에 대한 더 사색적이고 반성적인 고려를 기술한다(차배근, 1992; 홍대식, 1995).

이 인지일관성 이론에서 태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다음 세 가지의 이론들이 파생되어 나왔는데 그 첫째는 형평이론(Balance Theory)이고, 그 둘째는 상합(相合)이론(Congruity Theory)이며, 그 셋째는 인지부조화 이론(Dissonance Theory)이다.

태도변화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일관성(the consistency)이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도입한 사람은 Heider이다. 그는 사람의 태도에는 긍정적인 가치(positive valence)와 부정적인 가치(negative valence)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 사이에 형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형평성이 깨어진다해도 태도는 변화에 저항하여 다시 형평 상태로 복귀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이론이 형평이론이다.

둘째, 상합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심리구조에 어떤 새로운 정보가 접수되면 종전의 심리적 형평 상태에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형태로든 태도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Osgood, Suci, 그리고 Tannenbaum의 세 학자가 공동으로 의미의 측정에 관한 연구를 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요인분석법을 통해서 의미에는 평가(evaluation), 효능(potency), 활동(activity)의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보고 이 중에서 평가적 차원의 의미를 태도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상합이론은 태도의 문제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지구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여러 태도 변화의 이론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곧

Festinger의 인지부조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태도란 사람들의 조직적인 심리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구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부조화(dissonance)를 기피하고 조화(consonance)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화나 부조화는 사람들 마음속의 두 개 이상의 태도들이나 다른 인지적 요인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 위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이다. 사람들의 태도변화는 결국 부조화를 기피하고 조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 이론은 보고 있다(Festinger, 1957).

2) 인지일관성 이론과 SAC와의 교육적 함의

인지일관성 이론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SAC와 관련성이 있다. 이 이론들에 의하면 학생들은 각자의 신념에 기반을 두고 논쟁문제에 관한 입장 표명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지적 갈등과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에 관한 모순을 최소화하려는 학생들의 욕구 때문에 SAC를 한 후에 학생들의 태도가 변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SAC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신념과 태도가 균형 있고 조화로우며 일관성이 함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그들의 신념과 반대되는 입장에 관해 논쟁하면서 행동적 신념이 변화되어 태도·의도·행동에도 영향을 받게 되며, 논쟁문제에 관한 주제를 선정한 후 특정 입장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지각된 인식도 변화될 것이다.

특히 균형이론에 의하면 SAC는 대인간 혹은 사람과 사물간의 본질적인 상호연관성을 잘 파악하면 지적 불균형 상태가 해소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상합이론에 의하면 학생들이 논쟁문제에 관한 토의 과정을 통해 사물들에 대해 갖고 있는 선형적 지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지부조화 이론은 SAC에서 반대 입장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나, 학생들의 태도 변화에 의해서 인지적 부조화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Festinger의 이론에 의하면, 인지요소들 사이가 서로 모순되는 관계이면 인지요소 사이에는 부조화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지요소들이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또는 그의 주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태도 또는 신념들의 낱말을 말한다. 부조화 상태는 지각자의 준거틀 속에서 하나의 인지요소가 다른 요소와 맞지 않거나, 다른 요소로부터 상응하지 않을 경우나 또는 하나의 요소가 다른 요소의 반대를 내포하고 있을 때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의 인지요소가 다른 요소를 내포하거나 그것과 일치 또는 상응할 때에는 조화상태가 존재한다.

이경호(2000)의 연구에 의하면, 인지갈등은 SAC 중 학습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업 중 학습동기는 수업 중 학습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업 중 학습전략은 재개

념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에서 인지갈등은 재개념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수업 중 학습동기와 수업 중 학습전략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하여 재개념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재개념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인지갈등이 반드시 유발된다는 점에서 인지갈등은 재개념화의 필요조건이 되므로, 인지갈등은 재개념화의 원인이 되는 핵심적인 변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순재(2003)의 SAC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협동학습 구조화에서 수행된 논쟁문제 중심 수업은 강의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 사고과정보다 고차원의 인지적 학습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논쟁중심 수업 집단의 학생들은 정보·아이디어 및 의견을 교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등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불가피하게 인지적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적 갈등은 결국 성취동기를 촉진하고 높은 수준의 성취를 얻게 함으로써, 학습한 자료를 더 잘 기억하게 되고 이해의 폭이 심화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위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논쟁문제를 주제로 한 SAC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불일치하는 상황에 대면한 학생들이 인지갈등을 강하게 겪을수록 학습동기 역시 강하게 유발되어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회인지 이론 : 스키마 이론(Schema Theory)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개념화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감정·의도·견해 등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연구하는 사회적 인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사회인지(social cognition)란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지각하느냐를 말한다. 전술한 인지일관성 이론이 내재적 모순을 줄일 수 있는 동인(drive)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사회인지 이론은 현재의 인지체계 이해에 토대를 두고 있다. 사회심리학과 인지심리학을 접목한 사회인지론은 사람들이 사회적 현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석·조직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스키마 이론은 사회인지 이론 중에서 SAC와 관련된 대표적 이론이다.

1) 스키마 이론의 배경

스키마 이론의 개념은 Kant의 순수이성비판에서 제시된 것으로,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개념은 개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될 수 있을 때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오면서 인간의 지식 인식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들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서 스키마에 관한 연구를 사회과 교육에 응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하다. 스키마란 외부에 자극(정보)

을 표현해주는 정신적 구조, 지식의 구조를 의미하는 말로서, 지식의 인식에 관한 감지심리학의 최근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스키마 이론은 최근에 급속도로 발달한 정보처리 과학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지식 인식을 근본적으로 컴퓨터의 정보처리 과정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인간은 정신적 구조인 스키마를 통하여 지식을 인식하며, 선행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지식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극(정보)과의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거쳐 스키마 자체가 발달해 간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기억에는 수많은 선행 경험에 의하여 형성된 지식의 표상이 남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컴퓨터의 기억 장치와 같아서 지식을 저장하는 숨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곳에 정보(외부의 자극)를 저장했다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기도 하며, 수정하기도 하는 인지작용을 계속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구성요소로 형성된 이 스키마는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외부 정보와의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해 간다고 본다.

2) 스키마의 정의

스키마(Schema)란 한마디로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하나의 지식이다. 지식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이해에 큰 도움을 주리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식이란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지식구조라 찬다. 인지주의 심리학자는 기억 및 학습이론을 말할 때 이 스키마가 하나의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며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존의 지식구조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특히 이해라는 개념을 특징지면서 스키마의 역할을 강조한다. 스키마란 주어진 화제에 대한 모든 지식을 서로 관계 맺게 하는 지식구조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스키마의 계층적 구조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예시를 보면 “식당에 간다”라는 일반적 개념은 ‘좌석이 있는 식당’, ‘패스트푸드 식당’, ‘극장식 식당’, ‘각국의 식당’ 등과 같은 하위 구조를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하위 구조 속에서도 ‘각국의 식당’에 대한 선행지식 구조 속에는 ‘이탈리아 식당’, ‘미국 식당’, ‘한국 식당’, ‘중국 식당’등이 있고, ‘중국 식당’이라는 선행지식구조 속에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다른 ‘중국 식당’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지식구조는 그 선행지식 구조가 내재하는 여러 가지 다른 선행 지식구조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층적으로 대단히 복잡한 구조를 나타낸다. 이러한 스키마의 계층적 구조에 관하여 Carrell(1988)은 스키마를 ‘상호 작용하는 지식구조’ (interacting knowledge structures)라고 정의했다. 즉 이들 상호 작용하는 지식구조들은 계층별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계층의 상단부인 가장 일반적인 단계에서부터 하단부인 가장 특별한 단계까지

관계를 맺고 있다.

Howard(1987)에 의하면, 스키마(schema)란 자극의 어떤 부분을 표상해 주는 정신적 구조 및 지식의 조직체를 의미한다. 개념과 마찬가지로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표현인데, 외부 세계를 이해하거나 취급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스키마는 외부 세계의 구조, 조직 등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한 유형으로는 장면에 대한 것(scenes), 사건에 대한 것(events), 행동에 대한 것(actions), 사람에 대한 것(persons), 이야기에 대한 것(stories) 등의 다섯 가지가 있다.

스키마는 우리가 찾고자 기대하는 특별한 정보를 가득 채워주면서 그 전체적인 내용이 의미 있도록 안내해 준다. 적절한 스키마가 없이 어떤 이야기나 교재 혹은 수업을 이해하려는 것은 지도 없이 낯선 도시를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이 매우 느리고 어려운 과정이다. 이러한 스키마의 특징은 구체적 사례와 연결되어 있고, 많은 구성 요소(the slots)가 있으며, 스키마는 위계를 이루고 있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 또한 스키마는 어떤 주제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형성되기도 하며, 추상화의 정도도 다양하다.

이상과 같이 스키마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스키마는 일반적 지식 구조를 통합하는 정신적 구조로 관련 정보를 요약하여, 기억 속에 저장된 포괄적 개념을 표상하는 추론적 정신구조라고 할 수 있겠다.

3) 스키마의 기능과 종류

스키마는 기억을 순차적으로 탐색하게 한다.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내려서 자동차 문을 잠근다는 것은 자가용 승차 스키마가 승차·하차에 대한 어떤 순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키마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Anderson(1985)에 의하면, 스키마는 추론적 정교화를 통해 일관성 있는 해석을 하게하고, 자료의 요약 및 재구성을 가능하게 해주어, 중요한 정보를 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게 해 준다. 그리고 Rumelhart(1980)에 의하며, 스키마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을 촉진시켜 주며, 어떤 유형의 문제에 대한 절차적 지식과 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나 표상을 할 때 작용한다고 하였다. Howard(1987)도 스키마는 지각, 이해, 기억, 학습의 4개 기능이 있다고 주장 하였다.

스키마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형식 스키마와 내용 스키마가 있는데, 우선 형식 스키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일반적으로 글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글의 전개 방식 상 여러 가지 형태를 띄우게 된다. 신문의 기사를 쓰는 편집기자는 6하 원칙에 따라 신문기사가 취하는 일반적인 구성 방식을

선택하고 응변 원고를 쓰는 연사는 응변이 요구하는 양식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의도에 따라 작가가 선택한 양식을 보고 그 글이 어떤 종류의 글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독자의 형식 스키마 때문이다(Anderson, 1985). 능숙한 독자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기억할 때 형식 스키마를 사용한다. 능숙한 독자는 미숙한 독자보다 글의 구조를 잘 사용하고 더 많은 정보를 회상한다. 그러므로 담화 규약에 대한 지식인 형식 스키마는 독자의 이해과정을 도와주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텍스트의 유형마다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이고 수사학적인 조직적 구조는 다르다. 장르상의 차이, 우화 구조상의 차이, 이야기의 구조 등이 동일하게 엮여져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설명문을 보면 과정, 인과관계, 대조 및 비교, 종합, 분석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엮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가 배경, 서두, 전개 및 맺는말로 구성되어 있는가도 하나의 형식 스키마이다. 이와 같이 형식적이고 수사학적이며 조직적인 구조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자가 텍스트의 고유한 수사구조에 대한 스키마를 이해에 활용하는 능력은 성공적인 독해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음으로 내용 스키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형식 스키마를 하나의 골격이라고 하면 내용 스키마는 핵심을 말한다. 어떠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텍스트이던 간에 나름대로 내용을 가지고 있다(Carrell, 1988). 예를 들어 '신년하례' 라는 어떤 형식이 내용을 지니고 있는데 그 내용은 새해를 맞아 어른들에게 인사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어느 텍스트이건 내용을 알고 있을 때 여기에 속하는 지식을 내용 스키마라 한다. 내용 스키마는 각 개인의 두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장기 기억으로서 경험 전체에 대한 개념을 지칭한다. 독자의 배경 지식은 글에 나타난 정보를 필자가 의도한 의미에 가깝게 해석하도록 도와주며 독해와 정보의 회상을 촉진시켜 줄 것이다. 어휘 지식만으로는 문장의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내용 스키마와 같은 배경지식을 통해야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5) 스키마의 교육적 유용성

스키마는 지각, 이해, 기억, 학습 등에 유용하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대개 스키마의 적용력 부족 혹은 잘못된 스키마의 선택, 또는 애당초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스키마의 적용 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용한 자료를 간과할 수 있고, 잘못된 스키마가 한 번 형성되면 포기하기가 쉽지 않고, 또 어떤 주어진 상황에 잘못된 스키마가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Howard, 1987).

스키마는 모습에 관한 것, 사건에 관한 것, 행동에 관한 것, 인간성에 관한 것, 이야기에 관한 스키마 등의 유형이 있으며, 지각, 이해, 기억, 학습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기능을 한다고 한다. 이는 결국 학생들이 외부의 자극(정보)을 지각, 이해, 학습할 수 있으려면 적절한 스키마가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만약 적절한 스키마가 없거나, 외부의 정보가 적절한 스키마를 동원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전혀 엉뚱한 스키마가 개입되면 학습이 어려워진다.

이상과 같이 스키마는 지식의 인식에 관해서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하는 반면에 정보의 여과 과정에서 정말로 쓸모 있는 정보를 흘려버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억 속에 한번 형성된 스키마는 좀처럼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스키마에 맞지 않는 새로운 지식의 획득을 방해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기억 속에 잘못된 스키마가 일단 형성되면 이후의 학습을 오도(誤導)할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스키마 이론에 따른 교육적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선 언급되는 것은 바로 읽기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다. 스키마는 흔히 배경지식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읽기 교육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독서는 그 방법에 따라 상향식 과정, 하향식 과정, 그리고 상호작용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배경지식이 등장하는 방법은 바로 상호작용 모형이다. 상호작용 모형은 독해 과정을 주어진 정보와 독자 간의 활동이 동시에, 또한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는 특별히 독자의 배경지식 또는 선행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스키마 이론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스키마 이론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기억 속에서 어떻게 표상되어 있으며, 이 표상된 지식이 언어의 표현과 이해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이론이다. 이러한 스키마 이론은 특히 말하기와 듣기교육에 관련된 교육적 효과가 절대적이다. 교육현장에서 스키마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원진숙, 1994).

① 말하기는 상대방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활동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말하기 교육이 지식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되고 스키마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② 듣기는 화자, 담화 텍스트, 담화 상황 등에 관한 청자의 스키마에 따라 능동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추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청자의 스키마 형성과 스키마의 활용 전략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스키마는 경험의 산물이므로 학습자의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습활동의 중심은 교사가 아니라 학습자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언어활동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④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언어활동은 모두 학습자가 지닌 스키마를 토대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사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언어활동과 스키마의 공통부분은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6) 스키마와 SAC와의 교육적 함의

스키마는 우리의 경험을 범주화해주고, 사물들 기억 및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며, 현상의 발생 상황을 파악하게 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메시지 내용을 보강하고 상황을 정교화할 때 개인이 갖고 있는 스키마가 변화된다고 할 수 있다.

Piaget에 의하면, 인간의 인지 발달을 '모순 없는 새로운 지식은 동화시키고, 기존의 스키마에 적절하지 않은 지식에 대해서는 스키마를 변경하면서 끊임없이 스키마를 확장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Howard(1987)의 주장처럼, 스키마는 지각, 이해, 기억, 학습이라는 4개의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현상을 지각한다는 것은 스키마가 자료를 여과하여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며, 이해한다는 것은 자료에 적합한 스키마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논쟁문제에 관한 지지 입장과 반박 과정이라는 SAC을 통해 정보를 구조화할 때 스키마는 기억 가능 및 학습촉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다.

특히 스키마 이론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구성한다고 주장하는데, 논쟁문제에 관한 실제적 논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지 리허설 중에도 스키마는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SAC를 통해 선행 지식을 관련시킴으로써 도입된 특정한 새로운 지식의 의미를 부여해 주게 하며 자료를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면서, 쟁점에 관한 학생들의 선형적인 지식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한다. 스키마 이론에서는 자신들의 사고가 잘못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수정되고 개념을 범주화하며 기존의 관념을 유형화하면서 설명해 준다. SAC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제로 모순적인 스키마 정보를 대하게 하면 자신들의 능력으로 쟁점을 평가하고 할 가능성은 증가하고,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면 학생들의 선행 스키마가 그들 사고를 지배할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SAC을 통해 스키마는 우리의 경험을 범주화해주고, 사물들 기억 및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며, 현상의 발생 상황을 파악하게 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학습 전략과 규칙을 익히게 한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토론하고 주위 상황에 따라 반응하며 일정한 원리로 주어진 업무를 평가함으로써 추론과 비판적 사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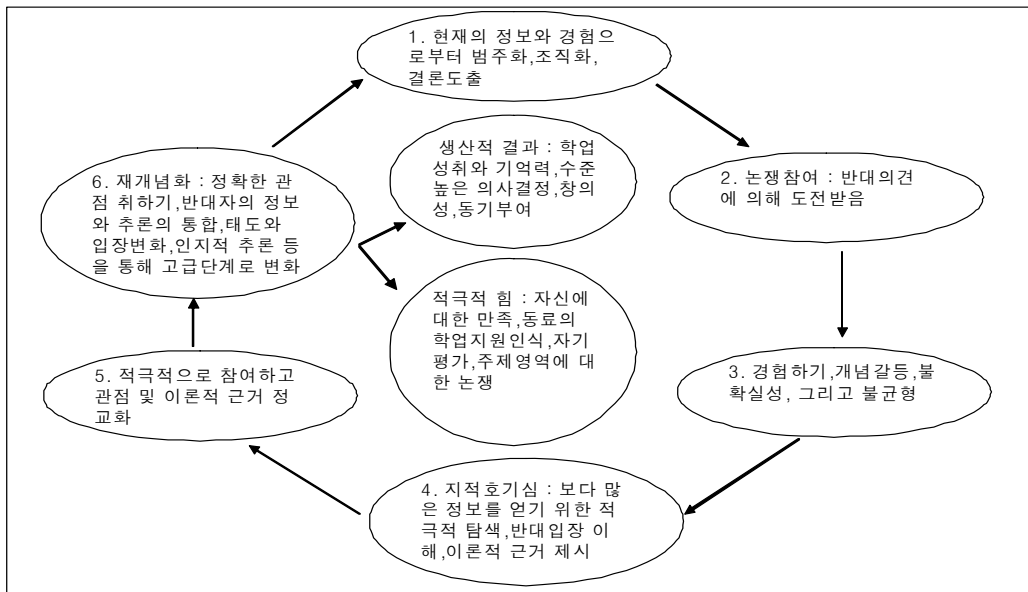
III. SAC 전략 탐색

1. SAC의 의의

일반적으로 수업목적을 위해서 지적인 갈등을 활용하는 경로는 주로 논쟁을 통해서 가능하다. Johnson & Johnson(1979)에 의하면 논쟁(controversy)이란 한 개인의 생각, 정보, 결론, 이론과 의견이 다른 사람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리고 양당사자가 의견일치(agreement)에 도달하려고 노력할 때 발생한다고 했다. 이때 양당사자가 의견불일치(disagreement)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이 발생한다. 그런데 논쟁은 서로 간에 일치하지 않는 입장을 논박하고 최상의 입장을 제시하는 기초위에서 승자가 선언될 때 존재하는 토론(debate)과 구별된다.

이러한 논쟁의 전형적인 과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논쟁이 학습을 촉진한다는 가설적인 과정은 학생들이 정보를 범주화하고 조직하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경험을 갖게 될 때 시작된다. 학생들이 SAC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상반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때 개념갈등(conceptual conflict), 불확실성(uncertainty), 혹은 불균형(disequilibrium)이 생기게 된다. 개념갈등은 보다 더 많은 정보, 더 적절한 인지적 관점과 추론과정을 탐구하기 위해 동기부여가 되는 지적 호기심(epistemic



[그림 1] 논쟁의 과정

출처 : "Critical Thinking Through Structured Controversy" by Johnson & Johnson, 1988, Educational Leadership, 45(8), p. 62.

curiosity)을 유도한다. 그리고 집단 합의로 입증된 재개념화는 관점 취하기, 반대 의견의 통합, 태도와 입장 변화, 아주 수준 높은 의사결정, 그리고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창의적 해결책 등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Johnson & Johnson, 1988).

논쟁에 참여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해 그 쟁점의 본질에 대해 연구하고 입장을 준비하고 그들 입장을 제시하고 주장하며 자신의 입장에 대한 반대 관점을 취하고 모든 집단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 SAC는 합의학습(concurrence seeking) 및 개별학습(individualistic learning)과 아주 대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가령, 합의학습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관점만 옳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적 호기심을 느끼지 못하며,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은 의견을 주장하기 꺼려하고, 타협을 재빨리 하기 위해 토의를 금지한다. 개별학습은 학생들 스스로가 개인의 자료들을 갖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때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만을 제시하므로 지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SAC에서는 학생들이 논쟁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게 되면 입장도전을 받게 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입장에 관한 개념적 갈등과 불확실성을 경험하면서 지적 호기심을 갖게 된다. 특히 개념적 갈등을 겪고 난 후, 재개념화 작업을 하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SAC의 유용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와 과제점수가 증가하고, 수준 높은 문제해결력 배양 및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창의적 통찰, 보다 철저한 전문적 식견을 갖고 의견 교류하기, 업무 참여의 헌신도 증가, 학생들 간의 대인관계의 적극성, 사회적 능력의 고양, 긍정적인 자기 평가, 그리고 스트레스와 역경을 극복할 능력의 강화 등이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논쟁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타인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지

<표 1> 수업방법 비교

SAC	합의학습	개별학습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정보의 범주화 및 조직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정보의 범주화 및 조직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정보의 범주화 및 조직화
입장과 정당성 제시, 옹호, 정교화	입장에 대한 적극적 표명	입장에 대한 구두 진술 없음
상반되는 의견 도전받음	하나의 견해에 대한 신속한 타협	단지 하나의 견해만 표명
자신의 관점 및 정확성에 대한 개념적 갈등과 불확실성 경험	자신의 견해가 옳음에 대한 높은 확실성 경험	자신의 견해가 옳음에 대한 높은 확실성 경험
지적 호기심과 관점 취하기 경험	지적 호기심 없음	지적 호기심 없음
재개념화, 종합, 통합	자신의 특정 견해만 고수	자신의 특정 견해만 고수
높은 학업성취·적극적 인간관계·심리적 건강·사회적 역량	낮은 학업성취·인간관계·심리적 건강	낮은 학업성취·인간관계·심리적 건강

출처 : "Structuring Academic Controversy" by Johnson & Johnson, 1994, p. 67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적호기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불확실성 혹은 불형평성은 더 많은 정보와 더 적절한 인지적 관점을 탐색케하며, 새롭고 재개념화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하는데 동기를 부여해 준다고 볼 수 있다(Johnson, Johnson, and Smith, 1986).

이상과 같은 적극적인 결과를 인출하기 위해서 교사는 SAC를 실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1) 논쟁집단은 논쟁이 시작될 때 자료와 관점을 풍부하게 제시하기 위해 인지관점, 정보 배경 지식, 학업능력 수준, 기능 및 태도 등에서 이질적(heterogeneous)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지도안 구안시 학업능력 수준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각 집단에 배정한다.

2) 논쟁문제의 양측면을 나타내기 위하여 적당한 양의 정보가 제시되어야 하며, 논쟁이 승자-패자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협동학습 구조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3) 학생들은 협력과 갈등관리 기능(개인적 능력을 확신하면서 타인의 생각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 관점 취하기 기능(정확한 이해 및 효과적인 전달방법 강구), 차별화 기능(입장의 차이 제기), 그리고 통합 기능(몇 개의 입장을 종합해 새롭고 창의적인 입장으로 만들기) 등을 강조한다.

4) 학생들은 상대방에 의해 입장 도전을 받게 되어도 합리적인 논쟁에 참여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5)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나는 비록 동의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의 생각을 경청한다.’는 것처럼 협동을 촉진시키는 8가지 토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것들은 구조화된 논쟁 과제에 제시하는 논쟁의 기술(또는 규칙)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Johnson and Johnson, 1988). ① 상대방의 입장을 반박할 때 생각에 대하여 비판을 하며, 감정적으로 하는 개인적인 비판은 금한다. ② 우리는 한 배에 탔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결정에 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③ 모든 조원이 참여하여 관련된 내용을 모두 이해하도록 격려한다. ④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⑤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으면 말을 바꾸어 설명해 본다. ⑥ 생각이나 사실을 모두 나열하고 양쪽 입장으로 나누어 본 후, 생각을 종합하도록 한다. ⑦ 양쪽 입장을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⑧ 증거가 확실하다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도록 한다 등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논쟁이란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의 고유한 양상이다. 만약에 개인들이 협동의 노력을 함으로 지적이고 정서적으로 참여한다면, 논쟁은 개인이 무엇을 하더라도 발생될 것이다. 이러한 논쟁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적극적 혹은 긍정적 결과는 교사가 어떻게 의

사결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구조화하는가에 달려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는 논쟁문제에 관해 상반되는 관점을 주장하고 격렬하게 논쟁하는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의 속에서 '진리'가 도출된다는 전제에 토대를 두고 있고, 그 진리는 억제된 이견의 갈등 속에서 잉태될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합리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서 각자는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절차적 과정을 터득하고 반대 입장에 도전하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 각자가 채택한 대안을 처음에 찬성했을 때와 무관하게 일단 결정된 의사결정을 스스로 준수해야 할 것이다(Johnson & Johnson, 1979).

요약하면, SAC는 학생들의 지적 갈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명료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필요조건은 학생들이 논쟁문제에 대해 갖는 지적 호기심 및 이를 분석, 적용, 종합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며, 이것이 충족될 때 재미있고 유쾌하며 기다려지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SAC의 절차

학생들이 특정 입장을 소집단내에서 찬성과 반대로 논쟁하고, 집단 간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SAC에 활용된 절차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Johnson & Johnson, 1979; 1994).

첫째, 주어진 입장에 대한 상황 탐색, 둘째, 입장의 타당성에 관한 설득력 있는 주장 제시, 셋째, 공개적인 토의에 참여하기(각자의 입장에 대한 일관성 있는 주장, 반대 입장에 대한 반박 시도, 상대방의 입장 반박하기 등), 넷째, 상반되는 관점 제시하기, 다섯째, 쟁점에 관한 최상의 합리적 판단 종합하기 등이다.

절차의 1단계에서, 학생들은 2명이 한 짝으로 구성된 4인 집단에 할당된다. 각 쌍을 연구할 쟁점에 관해 찬반 입장으로 배정한다. 학생들 각 쌍은 부여된 입장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개념적 틀로 조직해서 귀납적이고 연역적인 논리를 활용한다. 그리고 그 입장이 타당하고 정확함을 상대들에게 설득시키면서, 설득력 있고 도전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2단계에서 학생들은 부여된 입장에 대하여 가능한 최상의 상황을 설득해서 제시하고, 반대 입장을 신중하게 경청하며 그것에 근거한 자료와 논리 추론 기능 학습하려고 노력 한다.

3단계에서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토의에 참가하여, 반대 입장을 학습하기도 하면서 자신들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한다. 그들은 반대 입장에 대한 증거 및 입장을 논리적 ·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상대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동시에 다른 학생들과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 증거에 대한 신뢰성 및 논리성 있는 주장을 강조한다.

4단계에서 학생들은 관점을 뒤집고 성실한 자세로 정확하게 설득력 있는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논쟁을 하면서 학생들은 현재의 쟁점에 관한 최상의 입장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탐색하고, 자신의 입장을 마음속에 새겨둔다. 이 때 학생들은 공정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상대 관점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상반되는 관점을 제시한다. 각 쌍은 마치 자신의 입장처럼 성실하고 열성적으로 반대 입장에 대해 가능한 한 최상의 입장을 제시한다. 그렇게 하면 양 측에서 나온 자료를 추론하고 종합하는 능력이 증진되는 장점이 있다.

5단계는 학생들이 다양한 입장과 사실들을 하나의 합의된 관점으로 통합하는 종합화인데, 창의적 통찰과 새로운 입장을 채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학생들은 기존의 자신 입장을 버리고 증거를 제시하는 체계적인 관점을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논쟁문제를 검토하고 자료를 종합하면서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이루어진다. 즉, 상기 과정을 통해 쟁점에 관한 최상의 입장에 도달하고 각 집단이 합의할 수 있는 입장을 찾고 그들 자신이 인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입장이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양분법적 오류에서 벗어나야 하고, 두 입장이 모두 옳다고 진술하는 상대주의적 오류도 피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종합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Johnson & Johnson(1985)은 학생들이 논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논쟁의 규범(canons of rational argument)'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현재의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하는 능력과 도전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능력, 그리고 합리적 논쟁에 참여하는 능력 등은 논쟁문제를 건설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SAC 모형은 논쟁문제에 대한 인지적 분석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문제에 관련된 동등한 당사자로서 직접 소집단에 참여하여 쟁점에 대한 정보와 합리적 문제해결의 기회를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업수준이 낮은 학습자와 높은 학습자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교사가 수업을 구조화할 경우 훨씬 더 유용한 학습효과가 도출될 것으로 평가된다.

3. SAC 전략 적용 예시

1) 수업 주제 : 양심적 병역 거부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는가?

2) 주제 설정 이유

양심적 병역 거부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현행 법

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항소 8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예비군 교육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모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는 내적 자유와 외적 자유로 구분되는데 '내적 자유'는 절대적 자유지만,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외적 자유'는 국가안보와 질서유지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밝혔다.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병역거부자가 급증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엔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며 부대복귀를 거부한 강모 이병이 병역거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은 총을 드는 병역 대신 사회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에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있는 만큼 병역에 대해서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병역거부는 정당하며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논쟁문제를 2차시 SAC 전략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안하였다.

3) 교수-학습의 목표

- (1) 지식 영역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장이 병역 준수자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회적 논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사회적 논쟁문제의 가치론적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 (2) 기능 영역 :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조별 의견을 제시하고, 토의 절차와 규칙을 준수하면서 관련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3) 태도 영역 : 사회적 논쟁문제 중 헌법에서 국민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 병역 의무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

4) 교수-학습 방법

협동학습 구조하에서의 소집단 토의수업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학생들은 2명이 한 짝으로 구성된 4인 집단에 할당되어 총 9개조로 나눈다. 각 조의 조장과 발표자를 정하며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게 한다.

5) 교수-학습 단계

학습 자료	교사		학생	
	<양심적 병역 거부> 자료		읽기 자료	
SAC 목표	<양심적 병역 거부> 논쟁점에 대한 토의를 통해 국민의 의무와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가치론적 입장을 인식하고,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 의사 결정에 도달한다.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과정		유의점
		교사	학생	
문제 제기	학습 주제 ↓ 학습 목표 제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쟁점 배경을 제시한다. 병역의무와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개념 정의를 짚어준다.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듣거나 메모한다. 각 조별로 지명된 학생이 발표한다. 학습 목표를 인지한다.	교사는 칠판에 병역의무라는 논쟁문제의 내용을 쓴다. 학습분위기에 유념하면서 동기유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습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입장 상황 탐색	학습자료 제시 ↓ 입장 상황 탐색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논쟁점의 가치론적 특성을 강조한다.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관련 논쟁문제를 비판적인 태도로 분석하게 한다.	제시된 자료를 통해 병역의무라는 논쟁점의 사실적 측면과 가치론적 측면을 검토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사회적 논쟁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입장 타당성 주장	입장 제시 ↓ 타당성 입증	병역의무와 양심 및 종교의 자유라는 용어를 명확히 한다. 병역의무와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충돌되는 가치임을 확인시킨다.	병역의무와 양심 및 종교의 자유라는 용어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질문을 통하여 이해한다. 충돌되고 있는 가치를 명확히 구분하고 확인한다.	논리적 입장에 근거한 입장제시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토의 참여	조 편성 (4명씩 9개조) ↓ 토의 절차 안내 ↓ 조별 토의 전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해 각 조별로 토의를 하게 한다. 조별 대표자는 토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의하게 한다. 조별 토의 활동을 점검표에 따라 점검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논쟁점 토의의 주제를 확인한다. 조별로 각자 역할을 확인하고, 토의를 전개한다. 조별 토의 후 각 조의 대표자는 자신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한다.	SAC 중 교사는 집단을 순회하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교사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공정한 입장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반 관점 제시	각조 입장 제시 ↓ 자신의 조와 상반된 관점 제시	전체 사회자를 소개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각조 대표들의 주장을 듣고,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시작하게 한다. 전체 발표 과정에서 발언자의 주장을 명료하게 정리해 준다.	각자의 입장에 관해 철저히 논쟁한 후 입장을 바꾸어보고, 반대입장에 관해 논박함으로써 타인의 입장을 이해한다. 각 조원들은 가능하면 기존의 입장에 대하여 도전적인 태도로 논쟁해야 한다.	자기의 입장보다는 상대방 주장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각 조원들이 입장을 표명할 때 상대방이 활용한 자료를 참고해서는 안 된다. 전체 발표 시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지도한다.
합리적 판단 종합	논쟁점에 관한 합리적 판단 정리 ↓ 차시 예고	학생들이 논쟁점에 관해 최선의 대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강조한다. 차시 학습 과제를 예고한다.	차시 학습 과제를 기록한다.	전체 발표 결과가 본시 학습 목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4. SAC에서 교사의 역할 및 지도상의 유의점

SAC에서 교사의 역할은 협동학습의 연장선에 있다. 즉, 학습과 사회적 기능에 대한 목표를 구체화하고, 절차과정을 단순하게 적용시키기 전에 많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논쟁 절차를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통합하며, 논쟁에 참여하여 학생들 관찰하기, 개인 및 집단으로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참견하기, 그리고 학생들의 논쟁 절차를 통해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것 등이다(Johnson & Johnson, 1985).

SAC는 학생의 연령대와 무관하게 어느 교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SAC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 교사는 협동학습에 요구되는 대인관계 및 소집단 기능, 지적 탐구 참여 및 도전, 일부 관점을 동시적인 관점에서 보기, 다양한 입장을 종합해서 새롭고 창의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논쟁문제를 중심으로 SAC를 적용할 때, 교사는 다음의 부분들을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사는 학습목표를 학생이 확실히 알고 학습에 임하도록 충분히 확인시키며, 학습목표는 학생중심의 구체적인 행동용어로 명시한다.

둘째, SAC를 실시하기 전에 논쟁문제의 사례를 제시하고, 쟁점을 파악하도록 한 다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셋째, SAC시 학급구성원 모두가 토의할 내용과 근거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넷째, 학생들에게 가치와 규범을 주입하고 지식을 전달해 주는 수동적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능력과 고급사고력을 길러 주는 것이 중심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찬반 토의를 통해 제시된 덕목을 설득·강요하기보다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자간에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한다.

여섯째, 학생들에게 사회적인 가치갈등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즉, 학생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자료 분석에 따른 문제 해결 과정은 자율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교사는 안내자·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일곱째, 교사는 논쟁문제에 관한 찬반 토의를 하도록 한 다음, 찬성과 반대 의견을 토의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자료의 충실성, 토의내용의 논리성, 반대의견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토의 진행 방법 등을 각 조별로 상호 평가한다.

여덟째, 학생들이 진지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신념화하여 실천에 옮기도록 지도한다.

IV. 논의 및 시사점: 사회과 수업을 중심으로

SAC 전략은 기본적으로 협동학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즉 개별학습이나 경쟁학습에 비해 협동학습 구조하에서의 과제가 학습자들에게 문제해결이나 추론과 같은 고차적인 인지 기능을 요구하는 것일 때 SAC 전략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SAC 전략의 인지적 효과를 위한 과제의 성격은 소수의 주도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팀원들의 다양한 노력이 불필요할 정도로 난이도가 낮아도 안 되며, 정보, 지식, 문제해결전략, 자료, 기술 등이 요구되는 과제이어야 한다. 그리고 집단과제는 하나의 정답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로써 팀원들이 서로 공헌할 수 있도록 하고, 흥미롭고 보상제공이 있으며, 지적 도전 요소가 느껴지도록 복잡함과 실제성이 포함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적합하다(강인애, 1997; Cohen, 1994).

그리고 협동학습 구조로 이루어지는 SAC 전략을 통해 학습자는 학습과제에 대해 팀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상위의 인지적 발달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공유나 인지과정의 자극은 전통적 강의수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요소이다. 학습자들은 팀 내에서 서로 다른 정보, 의견, 지각, 추론과정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논쟁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은 촉진적인 상호작용의 핵심요소로 작용하게 된다(Johnson & Johnson, 1994). 즉 논쟁의 경험이 학습자에게 인지적 도전요소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팀 내 일치점을 찾아내기 위해 관련된 정보를 보다 더 많이 찾고 학습하며, 다른 팀원과의 토의 및 의사교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고급사고력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어떤 목표 구조 유형을 사용하느냐는 학생들의 감정·태도와 같은 정서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협동학습 구조로 이루어지는 SAC 전략은 학생들의 감정 및 학습태도 등 정의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Johnson과 Johnson(1979)도 협동학습 구조하에서의 SAC 전략은 동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공동목표를 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의적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하에서는 SAC 전략이 사회과 수업에 주는 시사점을 고급 사고력 및 학습태도 등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고급사고력 함양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는 훌륭한 민주 시민을 양성한다는 원대한 사회과의 목표는, 두말할 것 없이 교사와 학생의 활발한 상호작용에 터한 교수-학습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과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중요하고 관심 있는 논쟁문제를 다루게 함으로써, 장차 이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 결정력, 상호 협동 능력 등을 신장시키는 데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한면희 외, 1994).

특히 사회과 수업이 다루는 내용은 우리 사회 속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발생할 사회현상과 사상이다. 그러므로 교실 내 사회과 수업은 사회 현상과 맥락을 같이하며 학습자에게 호기심과 탐구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을 학습의 주된 내용으로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논쟁문제들은 그것들이 실제 생활 문제들을 취하고,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반성을 동기화하고 지식 습득의 필요성을 자극하고, 문화의 문제 있는 부분들을 비추기 때문에 사회과 수업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한은경, 2002).

오늘날 대부분 학교에서 교과교육의 목표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의 전달보다는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의사 결정력, 창의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탐구력 등과 같은 고급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을 핵심적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과 수업의 목표는 사회탐구와 가치탐구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신장시켜주는 등 고급사고력의 함양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고급 사고력은 학업성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정문성, 1994).

특히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의 사회과 수업은 인터넷이나 웹 자료를 활용하는 학습 환경으로 점차 바뀔에 따라 학습자들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고, 무수한 정보 속에서 특정항목의 소재 파악과 그 가치를 분석해 내는 기술과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정보에 대한 평가능력이 요구되어 특정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해당 정보가 유용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급사고 능력은 지식을 다루는 정보사회에서 학습자에게 점점 강조되는 능력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고급사고 기능 향상은 협동학습 구조하에서의 소집단 활동을 통해 목표의 정확한 인지, 소집단의 단합, 긍정적 상호작용, 사회적 기능 등의 요인이 바탕이 되어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이로 인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가 증진되었다고 판단된다(임채수, 2001).

요약하면, 학습자들이 습득해야 할 지식이나 기술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 범위도 확대되며 정보원도 다양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암기나 계산을 요구하는 정답형의 단편적인 지식보다 학습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학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해결 방식 중 가장 더 나은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학

습과제들이 학습자의 상위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관련지식을 이용하고 기존의 지식을 적절하게 변형시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기 위한 종합능력, 새로운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시된다. SAC 전략은 이와 같은 상위 인지적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긍정적인 학습태도 함양

Johnson과 Johnson(1979)의 연구에 의하면, SAC 전략은 경쟁학습과 비교했을 때, 논쟁문제에 관한 관심사를 표현하면서 토의하는 과정에 상호간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강한 신념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학생들이 서로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 상호의존성이 강해 수업 후 학생들 간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SAC 전략은 집단 구성원 사이에 적극적인 상호의존을 바탕으로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이 분담되어 있고 학습자들 간에 서로 도움과 격려를 주고받으면서 협동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학습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개인 학습자가 다른 모든 학습자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일반학습보다 사회과 교과에 대한 태도에서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학습수준, 성별, 지능, 사회 경제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SAC 전략을 경험한 학생들은 긍정적 상호의존성 때문에 서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학습태도를 갖게 된다(Johnson & Johnson, 1997).

한편, 이질적 집단을 모둠으로 편성하여 사회과 수업을 하게 될 때 협동학습 구조하에서의 SAC 전략을 경험한 집단은 경쟁학습의 집단 학생들보다 자아존중 및 대인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Johnson, Johnson & Maruyama, 1981). 이런 결과는 논쟁문제 토의에 참여하는 과정 SAC 전략을 통해 서로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 기능 향상은 SAC 전략이 소집단 구성원들과의 공동의 책임, 적극적인 집단 상호작용, 성공기회의 균등 등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V. 요약 및 결론

Johnson & Johnson이 개발한 SAC 전략은 논쟁을 교수전략으로 개념화하며, 논쟁이 건설적이기 위해서는 경쟁적 맥락에서 보다는 협동적 맥락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하였다. 논쟁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문제해결 방식에서 승-패(win-lose) 해결책보다는 승-승(win-win) 해결책이 도출되어야 함을 인식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환경은 협동학습 기법을 활용함으로써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학생들을 협동학습 구조하의 소집단에 기계적으로 배치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은 각 개인들이 서로의 생각에 대해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는 지원적인 분위기(supportive climate)를 형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SAC 전략은 두 개의 반대되는 의견을 지닌 2~3명으로 구성된 논쟁 참가자 팀이 주제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한 팀이 주장을 내세우면 다른 팀이 계속해서 논박하는 것이다. 이것의 장점은 논쟁문제의 한 측면에 대한 편견을 방지하고, 학습자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Johnson은 교실에서 논쟁을 활용할 때 어떻게 구조화되느냐에 따라서 건설적이든지 혹은 파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심리학 및 사회인지 이론에 근거를 둔 SAC 전략에 의하면, 인간은 논쟁문제에 관한 다양한 입장에 관한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추구하며, 자신에 내재되어 있는 선행 지식들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지적 호기심이 유발되고 결국에는 논쟁을 통해 지적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재조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SAC 전략을 통해 학생들은 어떤 입장에 관한 찬성과 반대 의견에 관해 논쟁을 하게 될 때 스스로 그들의 환경에 관련된 긴장체계를 경험하게 되며, 학생들이 논쟁문제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취하면서 논쟁함으로써 인지구조는 더욱 촉진된다고 본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논쟁문제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자 할 때 SAC를 경험함으로써, 환경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상에 관한 가치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논쟁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선정·보유·변형하면서 지식의 관련성과 타당성을 점검함으로써 고급사고력이 함양될 수 있다고 기대된다. 또한 협동학습 구조하에서의 SAC를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상호의존성이 형성되어 동료 및 교과에 대한 태도 등 정의적 영역의 기능도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에 관한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성과들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인애 (1997). 왜 구성주의인가. 서울 : 문음사.
- 원진숙 (1994). 결속성을 중심으로 한 논술문 지도 방안 연구. *교육한글* 7, pp. 101-132.
- 이경호 (2000). 고등학생의 물리 개념변화에 미치는 인지갈등,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의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이순재 (2003). 사회과 쟁점중심 수업이 비판적 사고 및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임채수 (2001). 협동학습 수업전략의 학습효과에 관한 메타 분석. 박사학위 논문, 경남대학교.
- 전병재 (1991). 사회심리학. 서울 : 경문사.
- 정문성 (1994). 사회과 학업성취에 대한 협동 학습의 효과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_____ (2002). 협동학습의 이해와 실천. 서울 : 교육과학사.
- 차경수 (1998). 현대의 사회과교육. 서울 : 학문사.
- 차배근 (1992). 태도변용이론. 서울 : 나남.
- 한면희 외 (1994). 사회과 교육론. 서울 : 갑을출판사.
- 한은경 (2002). 관례를 통한 법적 쟁점수업의 효과 분석.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홍대식 (1995). 사회심리학. 서울: 영양각.
- Anderson, R. C. (1985). *Role of reader's schema in comprehension, learning, and memory*.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Blandford, C. P. Jr. (1991). A Comparison of two methods of structured academic controvers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Saint Louis, pp. 22-23.
- Carrell, P. L. (1987). Content and formal schema in ESL Reading, *TESOL Quarterly*, 21(3), pp. 461-481.
- Cohen, E. G. (1994). Restructuring the classroom : Conditions for productive small group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4(1), pp. 1-35.
- Diekelman, N. (1988). Empowering pedagogy, A paper presented at a National League for Nursing Education Conference, Chicago.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onance*, Evanston, III: Row, Peterson.
- Howard. R. W. (1987). *Concepts and Schemata : an introduction*, Cassell Educational: Artillery Row. London.

- Johnson, D. W. & Johnson, R. T. (1979). Conflict in the classroom: Controversy and learning,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9(1), pp. 51-70.
- Johnson, D. W. & Johnson, R. T. (1985). The internal dynamics of cooperative learning groups, In Slavin, R.(Eds.), *Learning to cooperate, cooperating to learn*. NY : Plenum, pp. 103-124.
- Johnson, D. W. & Johnson, R. T. (1988). Critical thinking through structured controversy, *Educational Leadership*. 45(8), pp. 58-63.
- Johnson, D. W. & Johnson, R. T. (1994). Structuring Academic Controversy, In Shlomo Sharan.(Eds.), *Handbook of cooperative learning methods*. London: Greenwood Press, pp. 66-81.
- Johnson, D. W. & Johnson, R. T. (1997). Academic Controversy: Enriching College Instruction through Intellectual Conflict, *Eric Digest*, ED 409 828.
- Johnson, D. W., Johnson, R., Maruyama, G. (1981). The effects of cooperative, competitive and individualistic goal structures on achievement : A meta-analysis, *Psychology Bulletin*, 89, pp. 47-62.
- Keohane, R. E. (1951). "A short history of the teaching of current events and of contemporary affairs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of american secondary schools", In J.C. Payne (Ed.), *Contemporary Affairs*, 21st Yearbook of The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Washington, D.C.
- Lindeman, C. (1988). Participatory teaching, A paper presented at a National League for Nursing Education Conference, Chicago.
- Pederson, C. J. (1990). A comparison of structured controversy with lecture in nursing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p. 10-28.
- Rumelhart, D. E.(1980). Schemata : The building blocks of cognition. In Spiro, Bruce, & Brewer.(eds.), *Theoretical issues in reading comprehension*, Hillsdale, N J: Erlbaum.
- Watson, J. (1988). Ethic of Caring, A paper presented at a National League for Nursing Education Conference, Chicago.
- Weaver, R. L & Cotrell, H. (1986). Using interactive images in the lecture hall, *Educational Horizons*, Summer, 1896.

* 논문접수 2006년 8월 7일 / 1차 심사 2006년 8월 30일 / 2차 심사 2006년 9월 12일

* 이순재: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일반사회를 전공으로 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등에서 교과교육 관련 강의를 하고 있으며, 주요논문으로는 “소집단 토의 중심의 “쟁점중심 수업모형 탐색”, “중학교 교실에서 사회적 쟁점을 활용한 Engle-Ochoa 모형 효과”, “고등학교 교실에서 Johnson & Johnson Pro-Con 모형이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 등이 있다.

* e-mail: sjaele@hanmail.net

Abstract

A Study on the 'SAC' Strategy and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in the Cooperative Learning Structure

Lee, Soon-Jae*

An approach that is emphasized in dealing with various social issues of the modern society is the SAC strategy which is achieved through the structure of cooperative learning. This strategy puts value on the process of reaching a consensus by conducting debates in small groups with students assuming a particular position about a social issue.

SAC strategy is made up of the following 5 steps; 1) each pair of students researches the assigned position, 2) students persuasively present the best case possible for their assigned position, 3) students engage in an open discussion, 4) students reverse perspectives and present the opposing position, 5) integrating a number of different ideas and facts into a single position.

To illustrate the above, an example of an SAC strategy that is applicable in an actual situation will be given on the subject of "conscientious objector of military service."

According to SAC strategy which is based upon social psychology and social cognitive views of learning, human beings pursue analytical and systematic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various positions about social issues. After experiencing conflict with one's internalized prior knowledge and debating, they eventually reach mental equilibrium and restructure one's knowledge. Furthermore, as the students actively select, possess, and change information and examine the validity and relativity of their knowledge in the process of pursuing the essence of value about a phenomenon instead of being passively influenced by their surroundings, they are able to cultivate higher-order thinking, the ultimate goal of social studies education. Also, through the structure of cooperative learning, a positive mutual

* Lecturer,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dependence is formed, creating a positive attitude about fellow group members and social studies.

Key words: SAC(structured academic controversy) Strategy, Controversial Issues, Rational Decision-Making, Higher Order Thinking